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 구결의 어순 표시

장경준(고려대)

1. 머리말

* 조선시대 구결 자료 중에는 음독구결뿐 아니라 원문의 한자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을 수 있도록 석독 표기를 기입한 것들이 있다.¹⁾

* 이러한 석독 표기가 포함된 구결 자료는 원문의 한자에 한국어로 해석하는 순서, 즉 한국어 어순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문자나 부호)를 기입해 넣은 경우가 많다.²⁾

* 최근 들어 범응스님 소장 『법화경』(이하 ‘범응본 법화경’)과 원각사 소장 『능엄경』(이하 ‘원각사본 능엄경’)을 대상으로 어순 표시를 집중적으로 고찰한 장경준(2021ㄴ)과 장경준(2022ㄴ)이 발표되었다.

* 필자는 2022년 1~2월에 원각사본 능엄경(권1~2)의 구결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것과 같은 판본인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이하 ‘파리본 능엄경’)에 기입된 어순 표시를 비교해 보았고, 자못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파리본 능엄경은 점과 숫자를 이용한 기본적인 어순 표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유형으로 실현되었고, 그 밖의 부호 사용도 독특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장경준(2022ㄴ)에 핵심을 요약해 놓았다(본고 2장 참조).

* 파리본 능엄경은 1401년에 판각한 『능엄경』 목판에 학조의 발문을 추가하여 1456년에 인출한 책으로 음독구결과 함께 석독 표기, 어순 표시, 각종 주석 등이 기입되어 있다. 하정수(2020)은 이 자료의 권1~2를 대상으로 서지, 구결, 기입 한글, 주석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하였고, 정은영(2022)에서는 더 나아가 전권(권1~10)을 대상으로 서지, 구결의 유형과 특징, 『능엄경언해』와의 비교 분석 등의 연구를 치밀하게 수행하였다.

* 필자는 2022년 9~10월에 파리본 능엄경 전권을 대상으로 어순 표시를 다시 고찰한 결과, 선행 연구에서 미처 알아보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발견하였다. 이에 선행 연구(2장), 기본적인 어순 표시(3장), 점과 숫자 이외의 기호를 사용한 어순 표시(4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상세한 자료집을 별지로 제공하고자 한다.

1) 조선시대 구결에서 원문의 한자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 요소에 대해 그동안 ‘새김토, 해석토, 해석구결, 석독토, 석독표시, 석독 표기, 석독구결, 석독구결의 흔적, 훈독부호, 훈독구결, 언해토, 언해문 전사, 작은 글씨 입결’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정은영 2022: 55-56). 본고는 잠정적으로 ‘석독 표기’로 부르기로 한다.

2) 조선시대 구결에 나타나는 어순 표시는 安秉禧(1976), 南豐鉉·沈在箕(1976), 沈在箕(1976), 柳鐸一(1977), 藤本幸夫(1992, 1993), 김주원(1997), 南權熙(1998, 1999), 남경란(2001), 鄭在永(2006), 이진경(2002, 2012), 민현주(2013), 하정수(2020), 안대현(2021), 장경준(2021ㄴ) 등에 일부 소개가 되었으나 정밀한 관찰과 분석 없이 ‘이러한 어순 표시가 있다’는 정도의 언급에 그친 경우가 많고, 아직 소개되지 않은 자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장경준 2021ㄴ: 56).

2. 파리본 능엄경의 어순 표시에 대한 선행 연구

* 하정수(2020: 9, 28-32)

[각주] 안병희(1976)에서는 『능엄경』, 『법화경』 등의 한자의 훈을 차자나 한글로 기입하고, 우리말 어순으로 한숫자[漢數字] ‘一, 二, 三’ 등을 기입한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BnF 『능엄경』은 한숫자가 아닌 작은 목점 ‘·, …, …, …’ 등이 세로 형태로 길게 글자의 오른쪽에 붙어서 기입되었다. … 이 문헌에 기입된 주석 중 한자의 사이와 왼쪽 혹은 오른쪽 아래에 구결자 ‘ㄸ’와 유사한 모양의 한자 ‘下’가 작은 글씨로 기입되어 있다. 이 글자는 존칭의 호격 조사 ‘하’를 나타내는 구결자 ‘ㄸ’와 관련성이 없다. 장경준(2019)에서는 『법화경』에 기입된 부독자(不讀字) 표시에 대해 살펴보고 그 기입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문헌의 기입된 이 표기도 이러한 부독자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 부호가 기입된 구절을 살펴보면 해당 글자를 이 구절의 마지막에 읽으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호를 나중에 읽는 글자 표시 즉 후독자(後讀字)라고 할 수 있다. [각주] 원문을 풀이할 때 끝에 읽는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이므로 ‘末’자를 써서 말독자(末讀字)라고 할 수 있으나 나중에 읽는다는 의미가 광범위하므로 용어를 후독자(後讀字)로 사용하였다. … BnF 『능엄경』에 있는 후독자 부호는 경문을 우리말 순서로 읽을 때 목점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어순을 가져 읽기 어려운 구문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장치로 판단된다.

※파리본 능엄경의 권1~2를 고찰한 결과임. 밑줄은 본고에서 편의상 추가함.

* 정은영(2022: 116-121)

한문과 우리말은 어순이 서로 다르다. 기본적으로 한문은 주어-서술어-목적어 구조이고 우리말은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어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순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문헌에는 원문의 우측에 점으로 어순 표시가 되어 있다. 이것은 책 전권에 걸쳐 표시되어 있는데, 권9, 10에는 전권들에 비해 어순 표시 목점이 적게 나타나는 편이다. 점의 개수로 어순을 표시하였는데 한 개는 첫 번째, 두 개는 두 번째, 세 개는 세 번째 어순으로 풀이하라는 의미이다. … 문장 속에 서술어가 두 개 이상 나올 때는 어느 것이 내포문의 서술어이고 어느 것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인지 알기 힘들다. 따라서 ‘上’과 ‘下’로 이를 구분한 것이 아닌가 한다. … ‘上’과 ‘下’는 교정 부호로도 알려져 있다. 인판의 오자를 교정할 때 상하 위치가 도치된 글자 옆에 ‘上’을 써서 위로 올리게 하고 ‘下’를 써서 아래로 내리게 했다. 이를 고려할 때 해독을 위해 사용된 ‘上’과 ‘下’ 부호 역시 해독의 선후를 지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 ‘下’ 부호는 ‘上’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나 ‘下’만 전체 문장의 서술어에 적힌 예도 많다. … 권1에서 권10에 걸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선행 한자를 살펴보면 ‘明’에 6회 ‘下’가 기입되어 가장 많이 기입된 한자이다. 그리고 ‘由’에 5회, ‘見’에 4회, ‘悟’에 4회, ‘示’에 3회, ‘喻’에 3회, ‘至’에 3회, ‘不’에 3회, ‘識’에 2회 ‘下’가 기입되어 있었다. ‘下’는 주로 ‘알다’, ‘보다’ 등 지각동사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한자가 복잡한 문장 구조에서 마지막으로 서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下’가 동시에 두 번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上’과 ‘下’가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내포문의 서술어와 전체 문장을 이끄는 서술어를 표시한다. 그리고 ‘下’를 두 한자나 한자어에 연속해서 두 번 기입하여 두 한자나 어휘를 마지막에 함께 번역하라는 부호로 사용한 것이다. 한편 ‘下’가 아니라 ‘末’이 어순 표시를 위해 사용된 경우가 있는데 … 출현 환경은 ‘下’와 동일하다.”

※파리본 능엄경의 전권(권1~10)을 고찰한 결과임. 밑줄은 본고에서 편의상 추가함.

* 장경준(2022 ㄱ: 115-121)

조선시대 구결 자료에서 점과 숫자로 어순 번호를 매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해석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순독順讀, 그 반대인 역독逆讀 여부와 무관하게)

해석에 반영되는 모든 한자에다 순서대로 숫자를 하나씩 더해 가면서 번호를 붙임.

(단, 어순이 복잡한 문장은 중간에 번호를 1부터 다시 매길 수 있음.)

㉡ 해석의 방향이 순독일 때에는 같은 번호를 달다가 역독으로 바뀔 때마다 숫자를 하나씩 더하여 번호를 붙임. (단, 어순이 복잡한 문장은 중간에 번호를 1부터 다시 매길 수 있음.)

※법응본 법화경은 일관되게 유형㉠을 취함. ※파리본 능엄경은 일관되게 유형㉡을 취함.

※원각사본 능엄경은 유형㉠을 위주로 하되 유형㉡을 혼용함.

(최초로 순독하는 어순에서 유형㉡을 적용하여 어순 번호 1을 반복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어순 번호 2부터는 유형㉡을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음.)

… 한국어는 동사가 목적어의 뒤에 오고 중국어는 그 반대다. 따라서 목적어가 길고 복잡하면 한문을 한국어의 어순으로 번호를 매길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 한문에서 멀리 떨어진 글자를 한국어로 읽을 때 바로 앞뒤로 붙여서 읽게 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구결 자료는 이런 경우에 부호를 사용하거나 목적어의 마지막 부분에 동사로 쓰인 한자를 적어주기도 하였다. 다만, 원각사본 능엄경은 부호의 사용이 보이지 않고 동사로 쓰인 한자를 적어준 사례만 관찰된다.

그리고 파리본 능엄경은 동사와, 목적어의 구성 성분 중 마지막으로 해석되는 글자(A) 또는 마지막에 놓이는 글자(B)에 부호를 기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유형㉠: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의 A나 B에 ‘上’을 기입. (※권1~2에서 용례 2개 발견)

유형㉡: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기입하지 않음. (※권1~2에서 용례 10개 발견)

유형㉢: 동사와 목적어의 A에 모두 ‘下’를 기입. (※권1~2에서 용례 3개 발견)

유형㉣: 동사와 목적어의 B에 모두 ‘O’를 기입. (※권1~2에서 용례 1개 발견)

[각주] 목적어의 구성 성분 중 마지막으로 해석되는 글자(A)와 마지막에 놓이는 글자(B)는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파리본 능엄경의 권1~2를 고찰한 결과임. 밑줄은 본고에서 편의상 추가함.

※정은영(2022)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심사를 받은 박사학위 논문이고, 장경준(2022 ㄱ)은 2022년 1월에 연구를 시작하여 2월에 발표한 것으로서 선후 관계가 분명하지만 후자는 전자를 참조하지 못했음.³⁾

* 선행 연구에 대한 코멘트

- (1) 하정수(2020), 정은영(2022)는 장경준(2022 ㄱ)에서 ‘유형㉡’로 지칭한 이 자료의 기본적인 어순 표시 방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 (2) 하정수(2020)에서 어순 표시에 ‘한숫자가 아닌 작은 목점이 사용되었다’고 한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四,五,六’도 쓰임). 또한 이 자료에서 ‘下’가 기입된 한자는 한국어로 해석할 때 나중에 읽으므로 이것을 ‘후독자’라고 부른 것은 일리가 있으나 부호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좀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下’의 기능, 다른 부호와의 관계 등).
- (3) 정은영(2022)에서 ‘下, 上’의 사용 환경을 ‘전체 문장을 이끄는 서술어, 내포문의 서술어’로 기술한 것은 용례 전체를 설명하기에 미흡하고, ‘下’가 지각동사에 많이 나타난다고 한 것도 재고가 필요하다(지각동사는 일부에 불과함).
- (4) 하정수(2020), 정은영(2022), 장경준(2022 ㄱ) 모두 이 자료에 사용된 어순 표시 방식을 충실히 기술하지 못했다(훨씬 다양한 유형이 사용됨).

3) 필자는 아쉽게도 정은영(2022)의 존재를 2022년 9월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

3. 점과 숫자를 이용한 기본적인 어순 표시

“조선시대 구결 자료에서 점과 숫자를 이용하여 어순 번호를 매기는 경우에, 그동안 널리 알려진 방식은 ‘해석에 반영되는 한자에 순서대로 숫자를 하나씩 더해 가면서 번호를 매기는’ 것이었다. 최근에 소개된 법응본 법화경에서도 오류로 판단되는 예를 제외하면 일관되게 이러한 방식이 적용되었고,⁴⁾ 원각사본 능엄경도 이러한 방식이 주로 적용되었다. … 원각사본 능엄경의 일부 구절에는 어순 번호 1을 반복하여 표시하였는데, 이런 예들은 한문과 한국어의 어순이 일치하는 환경에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한문 구절을 한국어로 해석하여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읽는 환경에서는 한 점을 찍다가, 거슬러 올라가서 위에 있는 한자를 읽을 때 어순 번호를 2부터 하나씩 더해 가며 매기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원각사본 능엄경의 일부 구절에 부분적으로 나타난 ‘한문의 어순과 한국어 어순이 일치할 때 동일한 어순 번호를 부여하다가 그렇지 않을 때 어순 번호를 바꾸는’ 색다른 어순 표시 방식은 파리본 능엄경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었다.”(장경준 2022L: 253-256)

* 어순 번호를 매기는 방식

유형㉑: (읽는 방향과 무관하게) 해석에 반영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하나씩 더한다.

유형㉒: 위에서 아래로 읽을 때는 같은 번호를 매기고 거꾸로 올라갈 때 번호를 하나씩 더한다.

(㉑,㉒ 공통: 읽는 중간에 번호를 1부터 다시 매길 수 있고, 읽지 않는 한자는 번호를 매기지 않음)

* 검토한 자료의 양상

(1) 법응본 법화경: 일관되게 유형㉑을 적용함.

(2) 원각사본 능엄경: 유형㉑을 위주로 하고 부분적으로 유형㉒을 적용함.

(유형㉒을 적용한 부분에 어순 번호 2 이상은 거의 쓰이지 않음)

(3) 파리본 능엄경: 일관되게 유형㉒을 적용함.

(단, 제5책(권9-10)은 어순 번호가 없는 문장이 대부분이고, 있는 문장도 유형㉑ 내지 오류가 간혹 보임)

(※제5책은 이 밖에도 독특한 면이 있음)

* 파리본 능엄경의 구체적인 특징

(1) 유형㉒의 특성상 어순 번호가 6을 넘지 않는다.

-> 대부분의 문장에서 어순 번호는 1부터 4까지 사용되고 5와 6은 드물게 보임.

-> 반면에 유형㉑을 적용한 법응본 법화경이나 원각사본 능엄경은 어순 번호 7 이상도 흔히 보임.

(2) 어순 번호의 형태는 주로 점을 사용하고 숫자는 4~6에 한정하여 드물게 쓰였다.

-> 어순 번호 4와 5는 점과 숫자가 혼용되었는데, 숫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음.

(3) 어순 번호를 붙이는 단위는 낱글자가 기본이지만 2음절 이상의 단어에 붙이기도 하였다.

-> 굳이 어순 번호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생략한 경우도 많음.

(4) 점과 숫자를 이용한 기본적인 어순 표시 방식과 더불어 다양한 기호들이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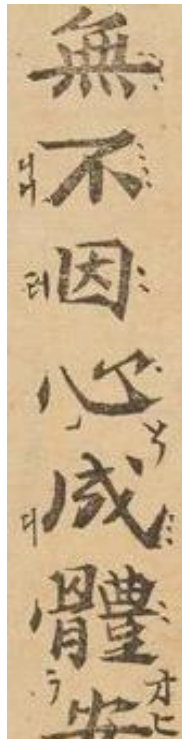
-> 파리본 능엄경은 동사나 목적어에 크게는 3가지, 세분하면 10가지 유형의 방식으로 ‘下’, ‘上’, ‘末’, ‘O’ 등의 부호나 동사를 표시하는 한자가 기입되었음.

-> 법응본 법화경은 4가지, 원각사본 능엄경은 1가지 유형이 관찰된 것과 크게 대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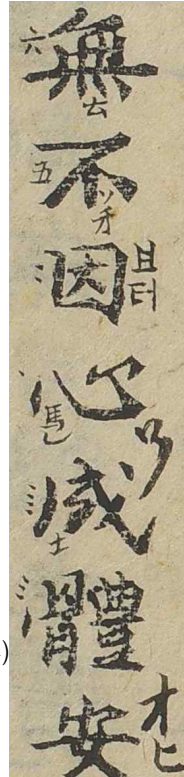
4) 어순이 복잡한 문장의 경우 중간에 번호를 1부터 다시 시작하기도 하지만, 번호를 매길 때 숫자를 하나씩 더해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예문01)

(예문02)



(1:36ㄱ4)



원각사본

파리본



(1:4ㄱ4)

파리본



원각사본

(예문01-1:36ㄱ4)

<언해> 既無不因此^{호야} 成體^{어니} 安得謂之無心^{호미} 同土木哉^{리오} (1:88ㄴ:7)

5 4 2 1 3 2 (파리본-유형㉔)

6 5 2 1 4 3 (원각사본-유형㉕)

<언해> 호마 무스물 브터 體 이디 아니 호리 업거니 엇데 무슴 업수미 土木 곤다 니르리오

(예문02-1:4ㄱ4)

<언해> 學者 | 慎勿執筌^{호야} 為魚然後^{에사} 首楞眞經을 可得矣^{리라} (1:10ㄱ:3)

4 4 2 1 3 2 (파리본-유형㉔)

5 6 2 1 4 3 (원각사본-유형㉕)

<언해> 비흠 사르미 筌 자바 고기 사모물 삼가 만 後 에사 首楞眞經을 어루 得 호리라

※(예문01), (예문02)를 통해 유형㉕와 유형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예문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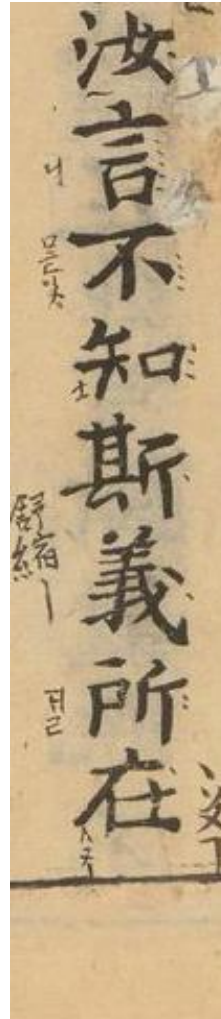
파리본



원각사본

(1:32-17)

(예문04)



파리본



원각사본

(2:18-13)

(예문03-1:32-17)

<언해> 以無所不現故로 齊彰並照 하샤미 如百千日 하시니라 (1:79L:4)

4 3 2 1 (파리본-유형㉔ 동일)

3 2 1 (원각사본-유형㉔ 동일)

<언해> 난디 아니훤 디 업슨 전초로 그즈기 나뉘며 다 비취샤미 百千日이 곧 하시니라

(예문04-2:18-13)

<언해> 應無方空이니 汝言不知斯義所在라 하논 義性이 如是 하니 云何爲在리오 (2:42-1:6)

1 5 4 3 1 1 2 1 (파리본-유형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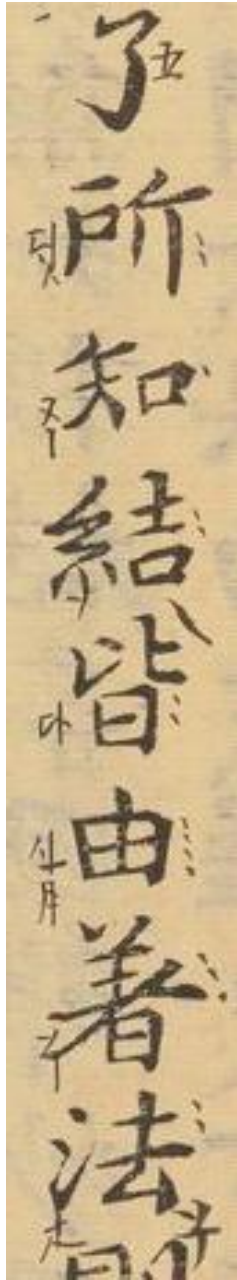
1 7 6 5 2 3 4 (원각사본-유형㉔)

<언해> 반드기 方하 空이 업스리니 네 이 뜯 잇논 덜 아디 몬하노라 니르논 義性이 이 곧 하니
엇데 이쇼미 드외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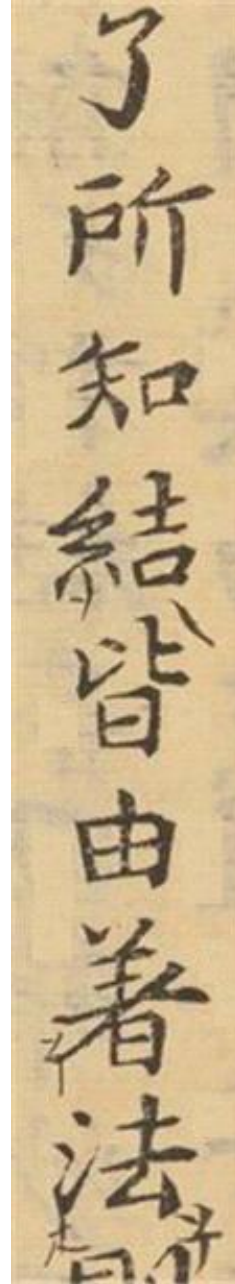
※(예문03)은 문장 구조상 유형㉔와 유형㉔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의 ‘所’에 대한 현토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예문04)는 유형㉔와 유형㉔의 차이 및 원문의 ‘所’에 대한 현토자의 인식 차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음.

<연습 문제> 아래 왼쪽 그림은 파리본 능엄경에서 볼 수 있는 어순 표시의 예입니다.
원각사본 능엄경의 현토자라면 어떻게 했을지 오른쪽 그림에 표시해 보세요.
(주의: 원문에 ‘所’가 포함되어 있음. 원각사본에도 유형⑥가 적용된 사례가 있음.)



파리본 5:11ㄴ5



(답안용 그림)

<언해> 了所知結이 皆由著法하면 (5:28ㄱ2)

5 2 1 2 2 4 3 2 (파리본-유형⑥)

? ? ? ? ? ? ? ? (원각사본)

<언해> 아논 덧 미요미 다 法에 著혼 다신 둘 알면

4. 기본적인 어순 표시에 더하여 각종 기호를 사용한 어순 표시

* 개관1: 유형 분류 (※자료집A 참조)

유형 자료	I (동사에 기입)			II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기입)						III (목적어에 기입)
	I 下 동: 下 목: ×	I 上 동: 上 목: ×	I 末 동: 末 목: ×	II 下-下 동: 下 목: 下	II 下-上 동: 下 목: 上	II 下-Vb 동: 下 목: Vb	II 末-末 동: 末 목: 末	II O-O 동: O 목: O	II 8-8 동: 8 목: 8	III 동: × 목: Vb
법응본 『법화경』	O (5)	O (13)	×	×	×	×	×	O (135) ⁵⁾	O (5+1) ⁶⁾	×
원각사본 『능엄경』	×	×	×	×	×	×	×	×	×	O (5+1) ⁷⁾
파리본 『능엄경』	O (40+5) ⁸⁾	×	O (2)	O (1)	O (5)	O (8+1) ⁹⁾	O (1)	O (6)	×	O (9)

파리본 용례 총 78개

‘()’는 발견된 용례의 개수

유형 I: 동사에 ‘下’ 또는 ‘末’을 기입

<유형 I 下>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표시 없음 (40개)

<유형 I 下下> 동사에 ‘下,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표시 없음 (5개)

<유형 I 末> 동사에 ‘末’을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표시 없음 (2개)

유형 II: 동사와 목적어에 여러 가지 부호나 동사를 기입

<유형 II 下-下>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下’를 기입함 (1개)

<유형 II 下-上>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 ‘上’을 기입함 (5개)

<유형 II 下-Vb>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동사를 기입함 (8개)

<유형 II 下下-Vb> 동사에 ‘下,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동사를 기입함 (1개)

<유형 II 末-末>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末’을 기입함 (1개)

<유형 II O-O>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O’를 기입함 (6개)

유형 III: 목적어에 동사를 기입

<유형 III> 동사에는 표시가 없고 목적어에 동사를 기입함 (9개)

총 78개

※유형 II와 유형 III에서는 목적어를 구성하는 글자 중에 ‘한국어 어순에서 동사 바로 앞에 읽는 글자’(A) 또는 ‘목적어의 마지막 위치에 놓이는 글자’(B)에 부호나 동사를 기입한다.

(‘也’와 같은 문말 어조사는 읽지 않는 글자로 인식하여 A와 무관하지만 B에는 간혹 포함되기도 함)

(A와 B는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 후자의 경우 A보다 B에 기입된 비율이 높음)

5) 동사와 목적어 중 어느 하나에 ‘O’가 기입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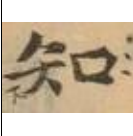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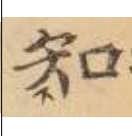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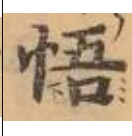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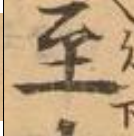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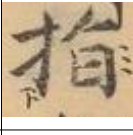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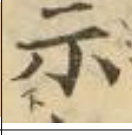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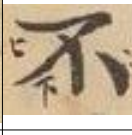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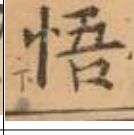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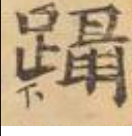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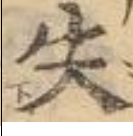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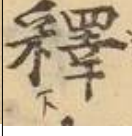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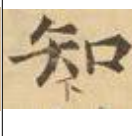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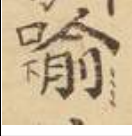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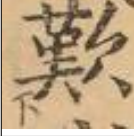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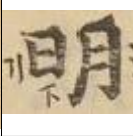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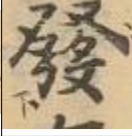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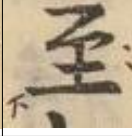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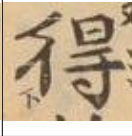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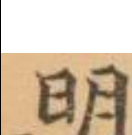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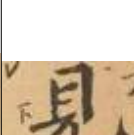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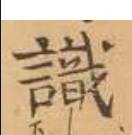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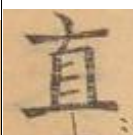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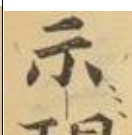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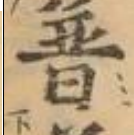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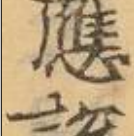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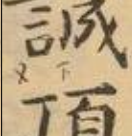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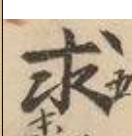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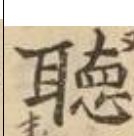
6) 5개는 ‘O’와 ‘8’가 함께 쓰이고, 1개는 ‘8’가 단독으로 쓰임.

7) 5개는 목적어에 동사를 기입하고, 1개는 목적어-동사 관계는 아니지만 다음에 읽을 글자를 적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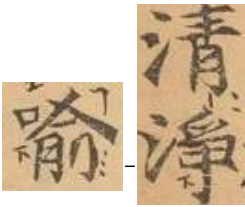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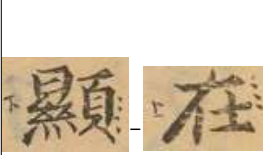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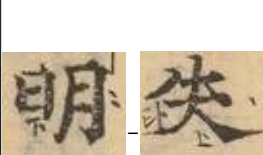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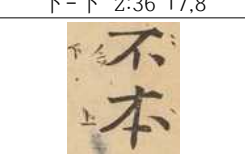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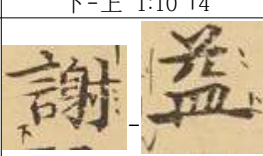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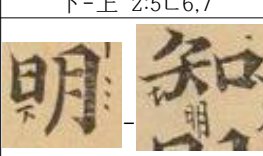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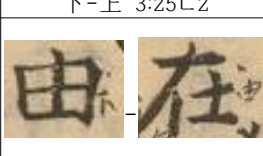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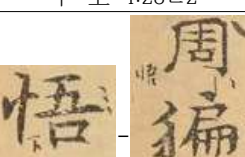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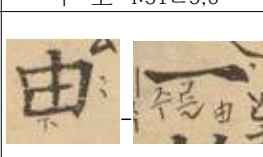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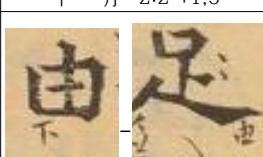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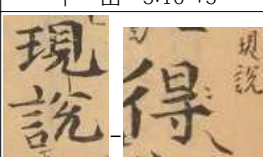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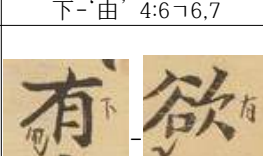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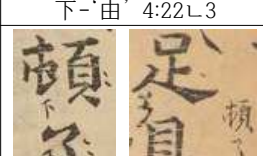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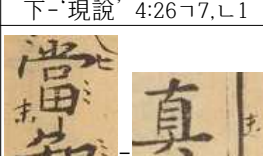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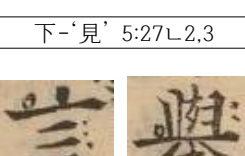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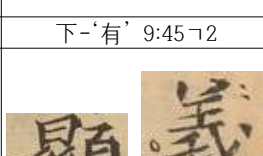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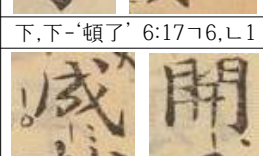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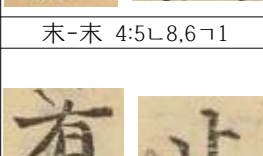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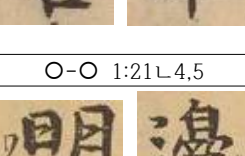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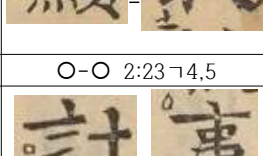
8) 40개는 동사 성분에 ‘下’가 단독으로 쓰이고, 5개는 동사 성분에 ‘下’가 연이어 ‘下, 下’로 쓰임.

9) 8개는 동사 성분에 ‘下’가 단독으로 쓰이고, 1개는 동사 성분에 ‘下’가 연이어 ‘下, 下’로 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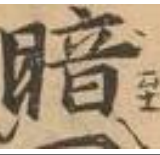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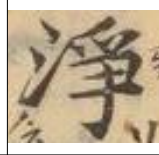
<유형 I: 동사에 ‘下’ 또는 ‘末’을 기입한 모습>

							
下 1:32ㄴ7	下 1:33ㄴ7	下 1:34ㄴ2	下 1:38ㄴ7	下 2:6ㄴ1	下 2:9ㄴ2	下 2:14ㄴ3	下 2:33ㄴ1
							
下 2:41ㄴ5	下 2:51ㄴ1	下 3:1ㄴ2	下 3:1ㄴ2	下 3:28ㄴ2	下 3:31ㄴ5	下 3:45ㄴ8	下 3:48ㄴ8
							
下 4:9ㄴ8	下 4:18ㄴ8	下 4:23ㄴ2	下 4:36ㄴ6	下 4:42ㄴ7	下 4:47ㄴ3	下 5:8ㄴ7	下 5:8ㄴ6
							
下 5:10ㄴ3	下 5:25ㄴ5	下 5:26ㄴ6	下 6:17ㄴ5	下 6:33ㄴ5	下 7:25ㄴ5	下 7:26ㄴ5	下 7:27ㄴ7
							
下 9:19ㄴ8	下 10:1ㄴ1	下 3:22ㄴ1	下 3:29ㄴ8	下 4:37ㄴ4	下 7:11ㄴ8	下 7:34ㄴ8	下 8:3ㄴ8
							
下,下 1:44ㄴ8	下,下 2:35ㄴ3	下,下 2:35ㄴ8	下,下 5:18ㄴ7	下,下 7:9ㄴ3	末 7:3ㄴ5	末 7:12ㄴ1	

<유형Ⅱ: 동사와 목적어에 여러 가지 부호나 동사를 기입한 모습>

			
下-下 2:36ㄱ7,8	下-上 1:10ㄱ4	下-上 2:5ㄴ6,7	下-上 3:25ㄴ2
			
下-上 4:28ㄴ2	下-上 4:31ㄴ5,6	下-‘明’ 2:2ㄱ1,3	下-‘由’ 3:16ㄱ3
			
下-‘悟’ 3:26ㄴ8	下-‘由’ 4:6ㄱ6,7	下-‘由’ 4:22ㄴ3	下-‘現說’ 4:26ㄱ7,ㄴ1
			
下-‘見’ 5:27ㄴ2,3	下-‘有’ 9:45ㄱ2	下,下-‘頓了’ 6:17ㄱ6,ㄴ1	末-末 4:5ㄴ8,6ㄱ1
			
○-○ 1:21ㄴ4,5	○-○ 2:23ㄱ4,5	○-○ 5:12ㄴ3	○-○ 9:32ㄱ4
			
○-○ 10:10ㄱ4,5	○-○ 10:22ㄴ4		

<유형Ⅲ: 목적어에 동사를 기입한 모습>

					
‘至’ 2:28ㄴ3	‘至’ 2:28ㄴ5	‘至’ 4:21ㄴ3	‘至’ 4:21ㄴ4	‘至’ 4:21ㄴ7	‘至’ 5:24ㄴ5
					
‘見’ 1:16ㄴ1	‘知’ 3:24ㄴ1	‘由’ 10:5ㄱ7			

* 개관2: 용례에 포함된 동사 목록 (*자료집B 참조)

번호	동사[언해문의 동사]	용례수
01	“至”[니르다]	8개
02	“明”[볼기다]	7개
03	“由”[닷(이다), 붙다, -르씨]	6개
04	“知”[알다]	6개
05	“見”[보다]	5개
06	“不”[몰ㅎ다, 아니ㅎ다]	4개
07	“悟”[알다]	4개
08	“喻”[가줄비다]	3개
09	“有”[있다, 이시다]	3개
10	“觀”[보다]	2개
11	“示”[뵈다]	2개
12	“爲”[드외다, 爲ㅎ다]	2개
13	“顯”[나토다]	2개
14	“計”[헤다]	1개
15	“求”[求ㅎ다]	1개
16	“窮盡”[窮盡ㅎ다]	1개
17	“得”[得ㅎ다]	1개
18	“了”[알다]	1개
19	“滅”[滅ㅎ다]	1개
20	“愍”[어엿비 너기다]	1개
21	“發”[發ㅎ다]	1개
22	“謝”[謝ㅎ다]	1개
23	“庶”[바르다]	1개
24	“釋”[사기다]	1개
25	“說”[니르다]	1개
26	“躡”[드되다]	1개
27	“成”[일우다]	1개
28	“成就”[일우다]	1개
29	“識”[알다]	1개
30	“失”[잃다]	1개
31	“言”[니르다]	1개
32	“因”[因ㅎ다]	1개
33	“頂禮”[頂禮ㅎ다]	1개
34	“指”[ㄱ르치다]	1개
35	“聽”[듣다]	1개
36	“歎”[讚歎ㅎ다]	1개
37	“現”[現ㅎ다]	1개

※정은영(2002)는 “‘明’에 6회 ‘下’가 기입되어 가장 많이 기입된 한자이다. 그리고 ‘由’에 5회, ‘見’에 4회, ‘悟’에 4회, ‘示’에 3회, ‘喻’에 3회, ‘至’에 3회, ‘不’에 3회, ‘識’에 2회 ‘下’가 기입되어 있었다.”라고 기술하였다(p.120). 정은영(2002)에 상세 목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용례가 2개 이상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관3: 용례의 권차별 분포 (*자료집C 참조)

유형 권차	I (동사에 기입)			II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기입)						III (목적어에 기입)	(총계)
	下	下, 下	末	下-下	下-上	下-Vb	下, 下 -Vb	末-末	〇-〇	Vb	
권1	〇 (4)	〇 (1)	×	×	〇 (1)	×	×	×	〇 (1)	〇 (1)	8
권2	〇 (6)	〇 (2)	×	〇 (1)	〇 (1)	〇 (1)	×	×	〇 (1)	〇 (2)	14
권3	〇 (8)	×	×	×	〇 (1)	〇 (2)	×	×	×	〇 (1)	12
권4	〇 (7)	×	×	×	〇 (2)	〇 (3)	×	〇 (1)	×	〇 (3)	16
권5	〇 (5)	〇 (1)	×	×	×	〇 (1)	×	×	〇 (1)	〇 (1)	9
권6	〇 (2)	×	×	×	×	×	〇 (1)	×	×	×	3
권7	〇 (5)	〇 (1)	〇 (2)	×	×	×	×	×	×	×	8
권8	〇 (1)	×	×	×	×	×	×	×	×	×	1
권9	〇 (1)	×	×	×	×	〇 (1)	×	×	〇 (1)	×	3
권10	〇 (1)	×	×	×	×	×	×	×	〇 (2)	〇 (1)	4
파리본 전체	(40)	(5)	(2)	(1)	(5)	(8)	(1)	(1)	(6)	(9)	78

<유형 I 下>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표시 없음 (40개)

◎ 보통은 동사의 목적어¹⁰⁾에 해당하는 부분이 길고 복잡할 때 동사에 ‘下’를 기입하였다.

(예문05) 由 (1:32ㄴ7)

<언해> 皆由[下]不知二種根本호야 錯亂修習이니 (1:81ㄴ:2)

1 4 3 2 1 1 1 1 3 3 3

(※‘下’는 4가 ‘아래 구절에 멀리 떨어진 3에 이어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언해> 다 두 가짓 根本을 아디 못호야 錯亂히 닷가 니긴 다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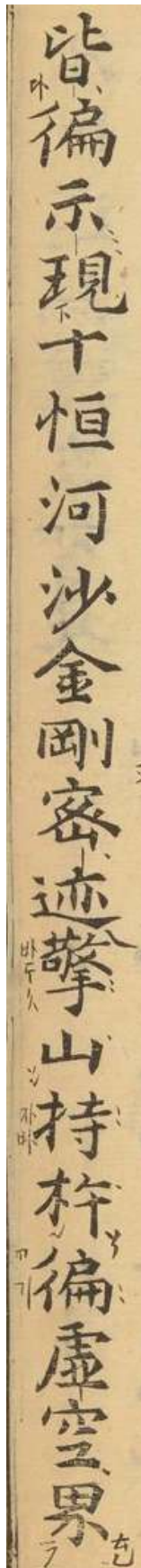
(예문06) 知 (2:6ㄴ1)

<언해> 知[下]汝身を 與諸如來清淨法身과 比類發明컨댄 如來之身은 名正徧知오 汝等之身은 號性顛倒 | 나라 (2:14ㄱ:2)

<언해> 네 모몸 諸如來清淨호 法身과 類를 가줄벼 發明컨댄 如來스 모몬 일후미 正徧知오 너희들히 모몬 일후미 性顛倒인들 아롭디니라



10) 여기서의 ‘동사’와 ‘목적어’는 통사론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이 아니고, 한국어로 해석할 때 어순이 바뀌는 ‘서술어’와 ‘서술어 다음에 나오는 주요 문장 성분’에 포함된 한자(들)을 가리키는 느슨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무엇이) 있다’로 해석되는 ‘有’도 여기서는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로 분류된다. (※여기서의 ‘동사’와 ‘목적어’를 대치할 더 좋은 용어가 있다면 바꿀 수 있음)



(예문07) 愍 (2:33ㄱ1)

<언해> 愍諸有學이 空溺多聞하고 不開慧目하야 而迷倒-輪轉也하시니라

2 2 1 3 2 1 1 1 1

(※‘下’는 2가 ‘아래 구절에 멀리 떨어진 1에 이어짐’을 표시)

<언해> 모든 有學이 恨갓 해 드로매 빠디고 慧目을 여디 몬하야 迷惑
하며 갓갓 그우뉴를 어엿비 너기시니라 (2:78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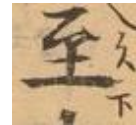


◎ 간혹 목적어가 길지 않은 경우에도 ‘下’를 기입하였다.

(예문08) 至 (2:14ㄴ3)

<언해> 至七金山히 周徧諦觀하라 (2:34ㄱ:3)

<언해> 七金山애 니르리 周徧히 子細히 보라



(예문09) 爲 (4:18ㄱ8)

<언해> 隨爲色空하야 (4:34ㄱ:3)

<언해> 色과 空과를 조차 드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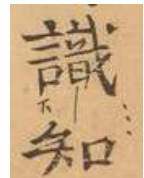


◎ 원문의 두 글자가 언해에서 하나의 동사로 번역된 경우, 또는 동사가 (동사가 아닌) 앞의 글자와 한 덩어리로 묶어 인식할 만한 경우에 두 글자를 붙임선으로 연결하거나 같은 어순 번호를 반복하고 나서 ‘下’를 기입하기도 하였다.

(예문10) 識知 (3:22ㄴ1)

<언해> 云何識-知是味와 非味와 하리오 (3:50ㄴ6)

<언해> 엇데 이 맛과 맛 아니와를 알리오



(예문11) 示現 (7:11ㄴ8)

<언해> 皆-徧示-現十恒河沙金剛密-迹이 擎山持杵하야 徧虛-空界커늘

1 3 1 2 1 2 1 2 1

(※‘下’는 3이 ‘아래 구절에 멀리 떨어진 2에 이어짐’을 표시)

<언해> 다 十恒河沙 金剛密迹이 뵈흘 바드며 杵를 자바 虛空界에 긋드
기 뵈여 現커늘 (4:28ㄴ4)



(예문12) 當觀 (8:3ㄱ8)

<언해> 當-觀姪欲이 猶如毒蛇하며 如見冤賊이니라 (8:6ㄴ5)

<언해> 반드기 姪欲이 毒蛇곤하며 冤讎入 도죽 봄 곤흔 둘 불디니라

(※언해문의 어순과 차이가 나는데, 이런 사례들이 종종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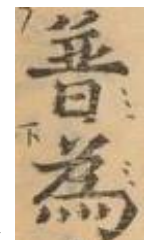
(예문13) 普爲 (7:34ㄱ8)

<언해> 乃能普爲大衆과 及諸末世一切衆生이 修三摩地하야 大乘者하야

1 3 3 1 1 1 2 1 2 1

(※‘下’는 3이 ‘아래 구절에 멀리 떨어진 2에 이어짐’을 표시)

<언해> 能히 大衆과 모든 末世 一切 衆生이 三魔地 닷가 大乘 求하릴
너비 爲하야 (7:69ㄱ2)



<유형 I 下下> 동사에 ‘下,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표시 없음 (5개)

◎ 바로 앞에 소개한 ‘두 글자를 붙임선으로 연결하거나 같은 어순 번호를 반복하고 나서 ‘下’를 기입한’ 그 환경에서 앞뒤의 글자에 모두 ‘下’를 기입하기도 하였다.

(예문13) 我, 見 (1:44 ㄱ8)

<언해> 我[下] | 見[下] 如來 | 百寶輪掌을 衆中에 開合 ㅎ 습노이다 (1:44 ㄱ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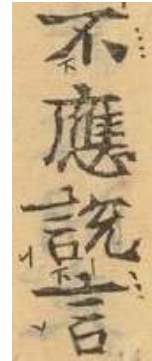
<언해> 如來 | 百寶輪掌을 衆中에 퍼락 쥬락 ㅎ사물 내 보습노이다



(예문14) 不, 說言 (2:35 ㄱ3)

<언해> 不[下] 應說-言[下] 호디 此捏根元이 是形과 非形과 離見과 非見이니라

<언해> 썩비는 根源이 이 얼굴와 얼굴 아니와며 봄과 봄 아늑과 여히요물 날오미
몬히리라 (2:83 ㄱ5)



<유형 I 末> 동사에 ‘末’을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표시 없음 (2개)

◎ 어순 표시를 위해 ‘下’를 사용한 환경에서 ‘末’을 쓰기도 하였다.

(예문15) 求 (7:3 ㄱ5)

<언해> 求[末] 於十方 現-住國-土 ㅎ신 無上如-來 | 放大悲光 ㅎ사 來灌其頂이니라

<언해> 十方 國土에 現住 ㅎ신 우 업슨 如來 | 大悲光을 퍼샤 甞바기에 와 브스샤
물 求흠디니라 (7:6 ㄱ-ㄴ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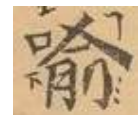
<유형 II 下-下>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下’를 기입함 (1개)

◎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下’를 기입하여 서로 호응하도록 하였다.

(예문16) 喻~清淨 (2:36 ㄱ7,8)

<언해> 喻[下] 有漏境-界는 唯妄覺이샤 見之는 卽同業妄-見也 | 오 彼無漏者는 見이 本
清-淨[下] 인들 ㅎ시니 (2:86 ㄴ3)

<언해> 漏 잇는 境界는 오직 妄 ㅎ覺이샤 보몬 곧 ㅎ가지 業의 妄見이오 더 漏 업스닌
보미 本來 清淨 ㅎ돌 가줄비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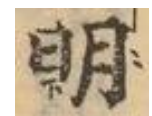
<유형 II 下-上>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 ‘上’을 기입함 (5개)

◎ 동사에는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 ‘上’을 기입하여 서로 호응하도록 하였다.

(예문17) 明~失 (2:5 ㄴ6,7)

<언해> 明[下] 諸佛衆生이 同一體性 ㅎ야 固無遺失 ㅋ늘 特依倒見 ㅎ야 言遺失[上]也 ㄴ들
ㅎ시니라 (2:12 ㄴ2)

<언해> 諸佛와 衆生과 體性이 ㅎ가지라 本來 일흠 주리 업거늘 오직 갓 ㄱ리 보물 브
터 일타 니르는 ㄴ들 불기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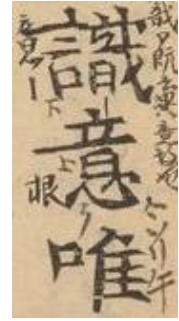


(예문18) 識~意 (3:25ㄴ2)

<언해> 若有所識하면 云何識[下]-意[上]라 하리오 (3:58ㄱ2)

<언해> 하다가 아룁 고디 이시면 엇데 識意라 하리오

<언해> [하다가 뜯과 달오디 제 아룁 고디 이쉴딘댄 엇데 **쁘데서 아는다** 하리오]
(※‘識’과 ‘意’에 붙임선을 그은 것은 언해문에서 ‘識意’를 한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이고,
‘識’과 ‘意’에 각각 ‘下’와 ‘上’을 기입한 것은 언해문의 주석에서 ‘뜻에서 알다’로
풀어서 번역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자료에서 이처럼 ‘下’와 ‘上’을
이용하여 호응 관계를 표시한 사례는 구결과 무관한 한문 주석에서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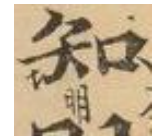
<유형Ⅱ下-Vb> 동사에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동사를 기입함 (8개)

◎ 동사에는 ‘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동사를 기입하여 서로 호응하도록 하였다.

(예문19) 明~知 (2:2ㄱ1,3)

<언해> 明[下]不生滅性是 在纏이 皆具 | 언마른 而世俗이 但隨物化홀시 雖居
至貴하야도 終從變滅하리어늘 曾不自知[明]ㄴ 돌 하시니 (2:3ㄴ2)

<언해> 匿王을 브터 니르와드샤문 生滅 아니하논 性是 엇큐메 잇느니 다 곳건
마른 世俗이 오직 物을 조차 드일씨 비록 至極히 貴호매 이셔도 믇츠매
變하야 업수믈 조츠리어늘 제 **아디** 묻하논 돌 **불기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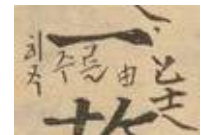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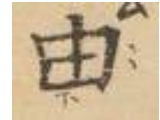


(예문20) 由~ (4:6ㄱ6,7)

<언해> 由[下]不如實知眞如法이 一[由]홀시 (4:13ㄴ5)

<언해> 眞如法이 **하나히론 주를** 實다히 아디 몬홀씨

(※이처럼 목적어를 구성하는 마지막 글자(B)에 동사를 기입하는 경우
한국어 어순에서는 바로 앞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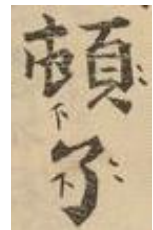
<유형Ⅱ下下-Vb> 동사에 ‘下,下’를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동사를 기입함 (1개)

◎ <유형Ⅰ下下>와 동일한 환경에서 동사에 ‘下’를 두 번 기입하고 목적어에는 동사를 기입하여
서로 호응하도록 하였다.

(예문21) 頓,了~足具 (6:17ㄱ6,17ㄴ1)

<언해> 使悟入者로 不止二十五門이라 頓[下][了][下]八萬塵勞와 法界理事 | 曾不離
吾의 一圓融淨覺之體하야 能同能異하며 卽一卽多하야 無邊刹海에 德用이
徧周하며 十方身土 | 境과 相괘 相入하며 邪正吉凶之術와 養生安物之方이
法法이 圓通하며 塵塵이 **足具[見]**矣샀다 (6:41ㄴ2)

<언해> 아라 들리로 二十五門뿐 아니라 八萬 塵勞와 法界入 理와 事왜 내인 혼
두려이 노곤 조흔 覺이 體에 갓간도 여히디 아니하야 能히 ㄱ트며 能히 다
르며 곧 하나히며 곧 하 無邊흔 刹海에 德用이 徧周하며 十方 身土 | 境
과 相괘 서르 들며 邪와 正과 吉과 凶갓 術와 生을 養하며 物을 便安케
홀 方이 法法이 圓通하며 塵塵이 **부히 ㄱ존 둘 다 알에** 하샀다



(※이처럼 동사에 ‘下,下’를 기입하는 것은 이 자료의 기본적인 어순 표시 방법인 ‘유형⑧’와도 부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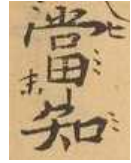
<유형Ⅱ末-末>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末’를 기입함 (1개)

◎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末’을 기입하여 서로 호응하도록 하였다.

(예문22) 當知~眞 (4:5ㄴ8,6ㄱ1)

<언해> 當-知[末]有所와 無所와 是明과 非明과 皆爲妄度 | 라 終非妙明明妙之眞[末]也 | 로다 (4:12ㄴ4)

<언해> 所 이솜과 所 업솜과 이 明과 明 아니와 다 거쥬 헤미라 내중애 妙明 明妙호 眞이 아닌 돌 받듯기 알리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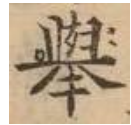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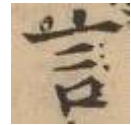
<유형Ⅱ〇-〇>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〇’를 기입함 (6개)

◎ 동사와 목적어에 모두 ‘〇’를 기입하여 서로 호응하도록 하였다.

(예문23) 言~擧 (1:21ㄴ4,5)

<언해> 言[〇]乞食歸林은 乃擧[〇]見前엿 方食之衆호시니 (1:54ㄱ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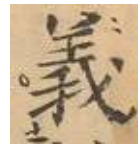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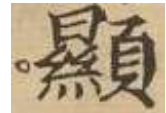
<언해> 밥 비러 林에 도라오다 호샤문 現前엿 비야호로 밥 먹는 衆을 드러 니르시니



(예문24) 顯~義 (2:23ㄱ4,5)

<언해> 爲顯[〇]見과 與見緣과 如虛空花호야 於中에 本無是와 非是義[〇]호실시

<언해> 見과 見의 緣과 虛空엿 곳 곤호야 그 中에 本來 이와 이 아닌 쁘디 업수물 爲호야 나토실씨 (2:55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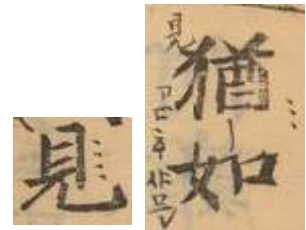
<유형Ⅲ> 동사에는 표시가 없고 목적어에 동사를 기입함 (9개)

◎ 목적어에 동사를 기입하여 다음으로 읽을 글자를 직접 표시하였다.

(예문25) 見~猶如 (1:16ㄱ8,ㄴ1)

<언해> 我見如來入 三十二相이 勝妙 | 殊絶호샤 形體 | 映徹호샤미 猶-如[見]琉璃호습고 (1:42ㄱ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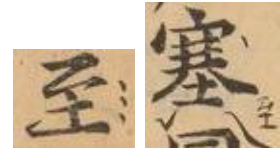
<언해> 如來入 三十二相이 7장 微妙호샤미 ㅅ로 다르샤 形體 ㅅ듯 비취샤미 瑠璃 곤호샤물 내 보습고



(예문26) 至~塞 (2:28ㄴ2,3)

<언해> 如是乃至因空因塞[至]이 (2:68ㄱ7)

<언해> 이 7티 空을 因호며 마고물 因호매 니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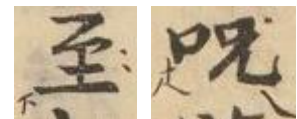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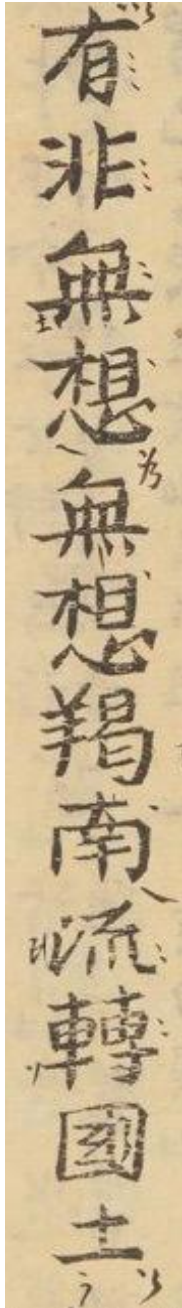
(※동일한 ‘如是乃至~’ 구문인데 (예문26)은 목적어에 동사를 기입하고 (예문27)은 동사에 ‘下’를 기입하였다.)

(예문27) 至~呪 (7:25ㄴ5)

<언해> 如是乃至[下]龍天鬼神精祇魔魅의 所有惡呪 | (7:47ㄴ2)

<언해> 이 7티 龍 天 鬼 神 精祇 魔魅이 ㄷ는 모딘 呪에 니르리





파리본 7:44-3

- * 파리본 능엄경에 점이나 숫자 이외의 어순 표시 기호가 많이 쓰인 이유를 짐작케 하는 사례

<언해> 如是故로 有非無想하나 無-想羯南이 流轉國土하야 (7:91ㄴ)

3 3 2 1 1 1 2 2

<언해> 이런 전츠로 想이 업디 아니하나 無想 羯南이 國土에 흘러 올모미 이셔

- *이 예는 유형⑩에 충실하게 어순 번호를 달았으나 처음 보면 오류라고 생각이 들 만큼 헛갈리기도 한다.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어순 번호를 매기는 유형⑩는 유형④에 비해 장점이 많지만, 이런 종류의 복잡한 문장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有’에 ‘下’나 ‘O’ 같은 부호를 표시해 주면 사정이 달라진다. 독자는 바로 아래의 3-2-1을 건너뛰어 그 밑에 있는 어순 번호 2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오해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목적어의 ‘轉’(A)이나 ‘土’(B)에 부호를 달아 ‘有’에 붙은 기호와 호응하게 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예를 들어 위 (예문05)는 바로 이런 환경에서 ‘下’를 기입한 경우이다.)

이런 사정이 유형⑩를 전면적으로 적용한 파리본 능엄경에서 복잡한 문장의 동사, 목적어에 여러 종류의 기호가 사용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유형Ⅱ와 유형Ⅲ에서 목적어를 구성하는 글자 중에 어순 표시 기호가 기입되는 자리는 ‘한국어 어순에서 동사 바로 앞에 읽는 글자’(A) 또는 ‘목적어의 마지막 위치에 놓이는 글자’(B) 중에서 결정된다.

(1) (A와 B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A에 기입된 예

在(Ⅱ下-上 1:10ㄱ4), 舉(ⅡO-O 1:21ㄴ5), 猶如(Ⅲ 1:16ㄴ1)

(2) (A와 B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B에 기입된 예

知(Ⅱ下-Vb 2:2ㄱ3), 失(Ⅱ下-上 2:5ㄴ7), 義(ⅡO-O 2:23ㄱ5), 塞(Ⅲ 2:28ㄴ3), 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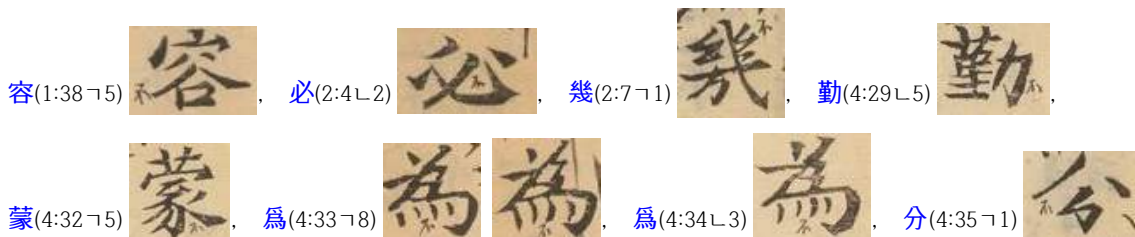
(Ⅲ 2:28ㄴ5), 在(Ⅱ下-Vb 3:16ㄱ3), 眞(Ⅱ末-末 4:6ㄱ1), 一(Ⅱ下-Vb 4:6ㄱ7), 足(Ⅱ下

-Vb 4:22ㄴ3), 得(Ⅱ下-Vb 4:26ㄴ1), 觸(Ⅱ下-Vb 5:27ㄴ3), 止(ⅡO-O 9:32ㄱ4), 欲

(Ⅱ下-Vb 9:45ㄱ2), 元(Ⅲ 10:5ㄱ7), 事(ⅡO-O 10:22ㄴ4)

(※‘A에 기입된 예’와 ‘권1에서 관찰된 예’가 일치하는 점이 주목된다.)

- * 한편 원문의 한자 중에 한국어로 번역하여 읽을 때 ‘읽지 않는 글자’, 즉 ‘부독자’에 대해 부독자임을 표시하는 부호로 ‘不’이 드물게 사용되었다. (※정은영(2022: 127)의 목록과 일치함)



5. 맺음말

(생략)

<참고문헌>

- 김주원(1997), 『緇門警訓』(石崙菴本)의 기입토에 나타난 16세기 경상도 방언, 『口訣研究』 2, 구결학회, 265-289.
- 남경란(2001), 「<능엄경>의 음독 입결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南權熙(1998), 「高麗末에서 朝鮮中期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圖書館學論集』 27, 한국도서관정보학회, 485-572.
- 南權熙(1999), 「朝鮮中期부터 舊韓末까지의 口訣資料에 관한 書誌學的 研究」, 『書誌學研究』 18, 445-519.
- 南豐鉉·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研究(其一)」, 『東洋學』 6,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07-137.
- 민현주(2013), 『證道歌』 이본의 입결(口訣) 연구, 『한국말글학』, 한국말글학회, 49-65.
- 沈在箕(1976), 「長谷寺法華經의 口訣」, 『美術資料』 19, 국립중앙박물관, 40-50.
- 안대현(2021), 「원각사본 『능엄경』의 음독구결과 언해 기반 석독 표기」, 제59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료의 신연구’, 구결학회, 75-88.
- 安秉禧(1976),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震檀學報』 76, 진단학회, 143-162.
- 柳鐸一(1977), 「鮮初文獻에 쓰여진 佛家口訣」, 『荷西金鍾雨博士 華甲記念論叢』, 397-421.
- 이전경(2002), 「15세기 口訣의 表記法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전경(2012), 「『爲』자에 현토된 석독표기자와 그 해독」, 『口訣研究』 28, 구결학회, 165-189.
- 장경준(2019), 「법응스님 소장 <법화경> 구결에 표시된 부독자(不讀字)」, 『한국어학』 84, 한국어학회, 91-134.
- 장경준(2021 ㄱ), 「『법화경』의 언해 기반 토 표기와 부호의 사용-법응스님 소장본 권1과 영천역사박물관 소장본 권4를 중심으로-」, 제59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여말선초 음독구결 자료의 신연구’, 구결학회, 89-111.
- 장경준(2021 ㄴ), 「법응스님 소장 『법화경』 구결의 어순 표시」, 『口訣研究』 47, 구결학회, 41-78.
- 장경준(2022 ㄱ), 「일산 원각사 소장 『능엄경』 구결의 특징 -어순 표시를 중심으로-」, 제61회 구결학회 겨울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종합적 고찰’, 구결학회, 109-126.
- 장경준(2022 ㄴ), 「원각사 소장 『능엄경』 구결의 어순 표시」, 『口訣研究』 49, 구결학회, 239-270.
- 정은영(2021),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의 구결에 대하여: 한글구결을 중심으로」, 제60회 구결학회 여름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고려시대 구결본 <합부금광명경> 연구’, 구결학회, 31-47.
- 정은영(2022),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 『능엄경』 구결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鄭在永(2006), 「韓國의 口訣」, 『口訣研究』 17, 구결학회, 129-189.
- 하정수(2020), 「프랑스국립도서관(BnF) 소장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脩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권1, 2에 기입된 구결(口訣) 및 한글 연구」, 『國語文學』 74, 국어문학회, 1-37.
- 하정수(2022), 「고양 원각사 소장 『능엄경』의 서지(書誌)와 판본(板本) 연구」, 『口訣研究』 49, 구결학회, 204-237.
- 한지희·김효경·이혜은(2017), 「프랑스국립도서관 필사본장서부에 소장된 한국 고문헌 연구」, 『書誌學研究』 69, 한국서지학회, 307-325.
- 藤本幸夫(1992), 「李朝訓讀攷(其一)」, 『朝鮮學報』 143, 朝鮮學會, 1-18.
- 藤本幸夫(1993), 「한국의 訓讀에 대하여」, 『國語史資料와 國語學的 研究』, 문학과지성사, 642-649.

프랑스국립도서관 이미지 검색(파리본 능엄경)

<http://gallica.bnf.fr/ark:/12148/btv1b105093974/f1.image.r=%E6%A5%9E%E5%9A%B4%E7%B6%93>